

민주 후보 첫 TV토론 '박원순 견제'

이석연 '범여권 시민후보' 확정

나경원 22일쯤 출마선언 ... 각자도생 후 단일화 가능성

서울시장 후보 경선 천정배·박영선·추미애·신계륜

“박 변호사 본선 경쟁력 회의적”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20일 MBC 생중계로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범여권 후보 가운데 지지를 1위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집중 견제에 나섰다.

이날 천정배, 박영선, 추미애, 신계륜(기호순) 등 4명의 후보는 여론조사 시점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박 변호사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박 변호사가 기호 8번으로 나갈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할지 의문이다. 민주당 후보를 의부에 넘기면 패망의 길”이라고 주장

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4명의 후보에게 시선이 나눠져 있다”며 “실질적 여론조사의 출발은 민주당 후보가 선정된 이후로. (그 이후) 다시 여론조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박 변호사)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정당에 때리는 때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계속 갈 수 없다. 우리 후보들이 뜰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후보는 “안철수 바람으로 일어난 박 변호사 지지가 민주당 지지층과 동일하지 않다. 양 지지층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

를 보였다.

박 변호사가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 입당하는 문제에 대해 박, 추 후보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천 후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장 보선의 자력 승리를 확신하지 못해 야권 단일화까지 해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천 후보는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안풍(安風)이 불고 참혹한 지경에 빠졌다”며 당 주류인 손학규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도부 중 내년 대선을 겨냥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가운데 흐트러진 모습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당이 변화를 놓치고 당내 상황에 매몰됐다”고 진단했고, 신

후보는 “안풍에서 보듯 당이 10~30대의 요구를 몰랐다”고 말했다.

천 후보와 박 후보는 등록금 인하 공약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가 “제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더니 천 후보가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고 하자 천 후보는 “박 의원이 말하기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천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2007년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던 지금은 입장이 비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기하며 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뒤 “천 후보는 (참여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관료였던 분이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한나라당이 영입 노력을 해온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지원하는 ‘범여권 시민후보’로 방향을 잡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독주를 계속하면서 두 후보 간 각자도생 후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일 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을 추대인 대표로 한 200여명의 범여권 시민사회진영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진영은 다수 인사를 수차례 접촉했고, 19일 저녁 8인의 실무진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회동에서 이 전 처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이 전 처장 추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의 시민후보 추대에는 박세일 상임의장 외에도 서경석 기독

사회책임 상임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김종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공동대표,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 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유석춘 교수, 인명진·김진홍 목사, 언론인 류근일·조갑제 등이 참여했다.

이에 유력한 한나라당 내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나경원 최고위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단독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김충환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여서 추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경선 여부와 관계없이 나 최고위원의 한나라당 후보 선정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향후 이 전 법제처장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요

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고민이 있다. 나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후보를 선출한 뒤 외부 인사와 또 경선을 치르는 방안에는 반대했으며 김정권 사무총장도 외부인사와 단일화 경선 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었다.

이와 달리 추대 직후인 21~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이 전 처장은 한나라당 후보와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는 한나라당이 폭넓은 인지도를 가진 나 최고위원을 당 후보로 선출해 ‘몹값’을 높이던 등 전 처장도 보수 시민후보로 나서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후보 문제 놓고 ‘미묘한 갈등’

손학규 “박원순 당선 범야권 지원해야”

박주선 “민주당 등록 전제 단일화 경선”

민주당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야권의 유력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갈등의 불씨가 된 모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미묘한 역학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박 변호사가 야권 통합후보가 될 경우 민주당에 입당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입당하지 않더라도 그의 당선을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변호사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대통합을 이끌어 내게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지난 13일 박 변호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한 것도 그의 입당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야권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 한 박주류 측은 야권 통합 흐름과는 다른 ‘민주당 후보론’을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야권 단일)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등록한다는 전제가 서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 경선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야권 통합보다는 ‘안철수 바람’으로 구겨진 야당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야권 통합이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의 명분으로 출발하지만 지역당 극복 등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의 호남 지분 및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대통합 및 야권연대가 혁신과 통합을 주축으로 한 친노 그룹, 영남 및 수도권 그룹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서울시장 후보 한자리에 20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후보자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천정배, 신계륜, 박영선 후보자. /연습스

박원순, 오늘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박원순 변호사는 21일 서울 효창동 백범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박 변호사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출마의 각오와 새로운 서울에 대한 정책구상을 밝히는 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낮은 자세의 선거운동을 통해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대비한 캠프 구성작업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박 변

호사 측은 경선 캠프 명칭을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로 잠정 결정하고 기성 정치권의 선거방식에서 탈피한 차별화된 방안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송호창 캠프 대변인은 20일 “선거 운동의 전 과정을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캠프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희망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산물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도의회, 축구 결의안

전남도의회가 농산물 재해보험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이기병 도의원(나주 1·민주)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제 262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농민들이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고도 피해율이 15% 이내인 경우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면서 농산물 재해보험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인구 증가 등으로 발생한 식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농업에 국가 생존력을 지키는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책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적용대상 재해를 전체 농작물과 모든 재해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금 지급 방식도 실제 피해율(현행 가입유형에 따라 15%, 20%, 30% 이내 보험금 미지급)을 적용하는 한편 국고지원도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울산 간 손학규 “PK민심 여당 떠났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은 이미 여당을 떠났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PK 민심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울산 대화호텔에서 열린 울산 평화복지포럼 창립대회에 참석, “지난 7월 부산저축은행, 당공동체 재시장, 한진중공업을 방문했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했다”며 손 대표의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이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며 “민주당과 진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접점이 평화와 복지”라고 강조했다.

울산 평화복지포럼은 민주노동당 출신의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 등을 공동대표로 하는 민주당 지지 성향 인사들의 모임이다.

이 지역의 각계 인사 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당의 지지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췌물이나 콧물이 줄줄 흐르며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